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장 낮은 수준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 최저임금 인상 따른 외식업 물가변동률 크지 않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저효과로 인한 채소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밥상물가 등 생활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이 예상됐지만 1월까지의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의 경우 열두 달 내내 1.3%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채소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식품 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0.4%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14년 9월(0.3%) 이래 3년4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선채소가 전년 동월 대비 13.1% 하락,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신선과실과 신선어개는 각각 5.4%, 4.4%씩 상승했다.

품목상질별 동향에서도 채소류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채소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9% 하락했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9월(-4.2%)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1월 17.5%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됐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배추와 무 등 일부는 가을 작황이 좋아 생산량까지 늘어 가격 하락에 힘을 더했다.

축산물 역시 지난해 기저효과로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0.6% 내렸다.

세부 품목을 보면 무(-45.3%), 토마토(-32.5%), 배추(-27.8%), 풋고추(-23.4%), 파(-23.1%), 당근(-17.3%)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겨울 가격 상승률이 절정에 달했던 달걀 물가는 기저효과가 반영돼 31.8%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의 경우도 지난해 말 가격 인하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했다.

반면 공업제품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7.5%), 경유(3.4%), 휘발유(2.9%) 등 석유류 가격이 4.5%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업제품 중 내구재와 가공식품은 각각 0.6%, 0.3%씩 올랐다.

전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집계됐다. 2014년 2월 1.1% 오른 뒤 가장 낮았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세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1.2%, 0.5%씩

오르는데 그쳤다.

지출목적별 등록률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가 3.3% 상승해 가장 높았고, 음식 및 숙박이 2.8%로 뒤를 이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3%), 통신(-0.2%), 기타상품 및 서비스(-0.2%) 등의 분야는 전년 동월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 물가 변동률은 크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운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해 "1월 숫자를 봐서는 지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월 외식물가는 전월과 비교하면 0.5% 올랐는데 17년 1월에도 전월보다 0.4% 올랐다"고 전했다.

전월 대비 개인서비스 물가는 0.5% 오르는데 그쳤다. 세부 품목을 보면 김밥(1.8%), 운동화원비(1.2%) 등이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고 호텔숙박료(-2.7%), 공연예술관람료(-2.4%), 헬스클럽이용료(-0.5%)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뉴시스



쉐보레, 2월 '새해 새출발 특별 지원' 프로모션

쉐보레(Chevrolet)가 2월 '새해 새출발 특별 지원' 프로모션으로 차종별 고객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쉐보레는 2월 한달 간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트랙스 구입 고객에 최대 80만원의 현금 할인과 4.5% 이율의 할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구입 고객 중 신입생·졸업생·입사·퇴직·결혼·신규사업자·면허취득·출산·입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30만원 특별 할인이 주어진다.

말리부 구입 고객에 한해 제공되던 쉐보레 체인지업 프로그램은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를 추가해 혜택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우차 포함 기존 2,000cc 이하 GM 차량 보유 고객

이해당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달에는 스파크, 아베오, 크루즈, 임팔라, 트랙스, 다마스, 라보 등 7개 차종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며, 쉐보레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마스, 라보를 재구매하는 고객 또한 50만원의 특별 할인을 받는다.

새해를 맞아 2017년 생산 차량에 대한 혜택도 파격적으로 강화한다. 카마로 SS에는 최대 300만원이, 올 뉴 크루즈에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 또는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임팔라, 올란도, 캡티바는 연중 최고 혜택을 제공했던 지난 12월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이달에도 제공한다. 임팔라는 최대 9% 할인, 올란도는 200만원, 캡티바는 30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군산=김판관 기자

"금연 등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하세요"

보험료 내기 어려워졌다면 '감액제도' 활용도

금연 등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면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웠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떨어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채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채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에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

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의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한국지엠, 신임 기술연구소 부사장 선임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기술연구소 전주명 새시엔지니어링본부 전무를 3월 1일부로 기술연구소 부사장에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명 신임 부사장은 향후 한국지엠 기술연구소를 이끌면서 회사 리더십 팀의 일원이 되어 카허 카젠(Kaher Kazem) 사장에 보고하게 된다.

1980년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입사한 전 부사장은 제품개발팀을 이끌며 경력을 쌓은 후, 소형차 및 준중형

차 개발 임원 등 다양한 차량 개발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 4월부터 GM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과 한국지엠의 기술연구소를 총괄해온 그렉 타이어스(Greg Tyus) 부사장은 38년간의 GM 경력을 마치고 4월 1일부로 은퇴한다.

GM 대학생 인턴으로 차체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시작한 타이어스 부사장은 GM 캐나다 기술연구소장, 홀덴(Holden)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이달 1~14일 온누

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한도도 이달 한 달간 30만원에서 50만원

로 높아진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명절 안전대책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며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중기부는 전체 할인규모가 2500억원

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주요 품목을 10%가량 할인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린드세일'도 추진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과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